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기초단체장·광역의원 출사퇴

광주·전남 행정·의정 공백 우려

광주시의원 7명·전남도의원 10명 사퇴하거나 사퇴할 듯 광주 구청장 4곳도... 전남 시장·군수 16곳 후보등록 예정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현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의정·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출마를 위해 입택(민주, 동구1), 김보현(민주, 서구2), 김영남(민주, 서구3), 문상필 의원(민주·북구3), 조오섭(민주·북구2)이 등 5명이 사퇴했다.

입택 의원은 동구청장, 김영남·김보현 의원은 서구청장, 조오섭·문상필 의원은 북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전을 벌이고 있다. 또 북구청장에 도전하는 이은방(민평·북구6) 의장은 오는 16일, 광산구청장에 출마하는 이정현(민평·광산1) 의원은 오는 9일까지 사퇴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전체 22명의 의원 중 7명이 사퇴를 했거나 앞두고 있는 셈이다.

광주시의회는 이들의 이탈로 오는 9일 시작되는 임시회 등 향후 의정에는 의원 과반수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큰 공백을 없앨 것으로 보고 있지만 5~8명의 의

원이 꾸러가는 각 상임위원회는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광주지역 일선 구청장들의 사퇴도 예상된다. 광주지역 현역 구청장 중 재선 도전을 준비하는 김성환 동구청장과 임우진 서구청장이 조만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에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현역 구청장 중 임우진 서구청장이 직무대행한다.

김성환 구청장은 출마선언 등을 하며 정치 행보를 넓히고 있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에서 공직후보자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주춤하고 있는 임우진 구청장도 무소속이나, 민평당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이들 구청장들은 오는 5월 25일까지 현역 유지가 가능하지만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선거 운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조만간 예비후보에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평당 광산구청장과 최영호 남구청장은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구청장직을 사퇴했다.

전남지역에서도 현역 기초단체장의 예비후보 등록과 광역의원의 사퇴가 줄을 이으면서 행정, 의정 공백이 우려된다.

전남도의원 중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은 이날 현재 ▲장성 윤시석(민주) ▲무안 정영덕(민주) ▲신안 정연선(민평), 임흥민(민주) ▲영광 이동권(민주) ▲곡성 조상래(민평) ▲구례 이창호(민주) ▲고흥 송형근(민주) ▲강진 박영태(민평) ▲진도 장일민(민평) 등 10명이다.

전체 도의원 58명 중 10명이 사퇴함에 따라 향후 의정 활동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단체장 중에서는 이날 현재 강진 강진원(민주) 군수, 곡성 유근기(민주) 군수, 담양 최형식(민주)군수가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또 3선 도전이 유력한 ▲순천 조종훈(민주) ▲진도 이복진(민주) ▲신안 고길호(민평) 등 3명도 조만간 예비후보를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선에 도전하는 ▲목포 박홍률(민평) ▲여수 주철현(민주) ▲나주 강인규(민주) ▲광양 정현복(무소속) ▲장흥 김성(민주) ▲화순 구충곤(민주) ▲안도 신우철(민주) ▲영암 전동평(민주) ▲영광 김준성(민주) ▲장성 유두석(민주) 등 10명의 단체장도 예비후보 등록에 따라 업무 정지가 예상된다. 이로써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72%인 16곳의 기초단체장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안희정 내일 영장심사... 검, 구속영장 재청구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또 한 번 자신의 구속 여부를 가릴 법정에 설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4일 오후 2시 박승해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청구서에 들어간 범죄 사실은 지난번과 같이 1차 고소인을 상대로 한 피감독자 간음 등 3개 혐의의 10개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씨는 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지난달 23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8일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의 태도 등 재판 사정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게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후 김 씨와 두 번째 고소인인

안 전 지사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주변 참고인 조사, 2차 피해 여부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3회에 걸쳐 분량이 250쪽에 이르는 고소인(김 씨) 조사에서 드러난 실제, 반복 피해경위, 전후 정황, 이에 부합하는 압수자료, 진료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심리분석 자료 등을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종합하면 혐의가 소명되고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대한 데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여기에 증거인멸 정황도 인정할 수 있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윤장현 시장, 금호타이어 결정적 역할 이동걸 회장에 감사

윤장현 광주시장은 2일 오후 KDB산업은행을 방문해 이동걸 회장을 만나 금호타이어 노사의 중국 더블스타로부터의 자본유지 및 경영 정상화 합의에 결정적 역할을 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시장은 "금호타이어 사태가 노사간 합의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 데 대

해 지역민들은 안도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끊임없는 중재와 노사에 대한 설득을 해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노사간에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동걸 회장은 "윤 시장님이 노사에 대한 설득과 채권단 및 정부 사이에서 막후 중재역할을 해낸 수훈감이셨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금호타이어를 방문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윤 시장도 조만간 금호타이어 노사를 만나 결단을 치하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상호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 포.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6·13 선거 현상

임우진 "중당당에 공천제심 청구할 것"



재선 도전에 나서는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이 최근 자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공천제심과 관련, 2일 "중당당에 공천제심을 당당히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임 구청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후보로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지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청천벽력 같은 공천제심 통보를 받아 대단히 충격적이고 당황스럽다"면서 "민주당 재건과정에서 일어난 저의 음주운전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혹독한 검증을 받았고, 의식 수준이 높은 서구 주민들께서 70%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심판해 줬다"고 설명했다.

이성일 "실현 가능 정책으로 선택 받을 것"



이성일 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2일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서구민의 선택을 받겠다"며 정책공약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서 상대지방으로 구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책 실종의 선거 현상이 심히 걱정된다"면서 "서구를 발로 뛰면서 주민과 만나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주민행복지표제'를 도입하여 서구청 추진 사업에 대한 주민 생활 영향평가 및 조정으로 주민 밀착형 실천 행정을 구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면서 "구민의 삶 전반에 걸쳐 평가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정책이다"고 소개했다.

서대석 "빈집 리모델링 청년 창업공간 활용"



서대석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2일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취약자 생활공간, 문화예술인 작업실, 사회단체 회의 공간, 청년 창업 공간 활용을 위해 대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도심 공동화로 빈 집이 늘어난 지역의 슬럼화를 부추기고,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가 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임기 4년동안 국·시비 10억원과 구비 5억원 등 모두 15억원을 확보, 총 50여채의 빈 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공동 숙소형, 단독형 하우스, 창작이나 창업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인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 발표



문인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경선 예비후보는 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북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공약과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문 예비후보는 "지역 경제구조를 강소기업과 벤처기업 중심체로 혁신시키고, 4차 산업혁명의 중심산업을 지역에 유치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일자리가 넘치는 북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환경개선, 차별화된 문화 벨트 조성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놓았다. 또 침체한 광주역과 주변 지역, 일신방직 인근 지역, 중흥동 도심 공동화 지역 등을 연계해 스마트 시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윤난실 "광산구청 제2청사 신축"



윤난실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2일 "광산구청 제2청사를 신축해 신도시 주민에 밀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밝혔다. 윤 후보는 "현재의 광산구청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화된 문제와 함께 인구가 밀집한 첨단·수안·신항 등의 신도시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면서 "이에 현재 광산구가 광주시와 협의하여 계획 중인 하나 3지구의 주민복합시설을 광산구청 제2청사 개념으로 신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축 제2청사에 대민 행정서비스 창구를 배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공간과 주민활동 지원센터의 역할을 이곳에 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두근 함평군수 출마 공식 선언



노두근 전 강진부군수가 2일 함평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함평군 학교면 출신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노 전 부군수는 "40년 행정 경험을 쏟아 부었던 민심과 낙후된 함평을 화합과 소통을 통해 희망의 새 함평으로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노 전 부군수는 ▲농·축·수산·임업인 소득 증대 ▲문화·레저 및 체험·생태 관광 등 관광문화산업 육성 ▲귀농·귀촌 인구 유입과 사회적 기업 육성 통한 청년·노인 일자리 창출 ▲화합과 소통을 통한 서민 복지 실현 등 4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1973년 함평군 나산면에서 첫 공직을 시작한 뒤 학교면장, 함평군, 전남도청 등에서 과장, 국장 등을 역임하고, 강진부군수와 군수 권한대행까지 지냈다.

송형곤 고흥군수 출마 공식 선언



송형곤(53) 전남도의회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 고흥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송 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고흥군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담아 고흥의 100년 번영의 기틀을 다지고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길잡이로서 고흥 발전을 이뤄내겠다"며 출마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인구 24만의 고흥이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지금의 고흥은 경제·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가 낙후를 벗어날 수 없었다"며 "이제 새로운 리더십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군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기 위해서는 큰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의 고흥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귀곤 고흥군수 예비후보 등록



송귀곤 민주평화당 고흥군수 예비후보가 1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노인복지시설에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송 예비후보는 부인과 함께 도양을 선정마을에 있는 '녹동 어울림' 노인요양복지시설을 방문해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다. 그는 이날 화장실 청소를 비롯한 자원봉사 활동 뒤 "고흥군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8.3%로, 고령화율이 전국 1위인 지역이다"면서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어르신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욱·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함평=황은화기자 hwang@kwangju.co.kr
/고흥=주자중기자 gju@kwangju.co.kr



제44회 보성다향대축제
2018. 5. 18.(금) ~ 5. 22.(화) / 5일간
한국차문화공원(보성차밭 일원)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
주최 주관 보성차생산자조합 / 보성다향대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보성군,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지역진흥재단



제13회 보성녹차 마라톤대회
2018. 4. 29.(일) 9시 출발
보성공설운동장

풀, 풀4인조(단체전), 하프, 10km, 5km
www.bsmarathon.co.kr 접수문의 : 061)375-1288 (마라톤세상) 061)850-5889 (보성군체육회)

주최·주관 : 보성군체육회 · 보성군마라톤연합회
후원 : 보성군 · 보성군의회 · 전라남도